

운곡서원 雲谷書院 춘향례 春享禮 봉행

운곡서원(雲谷書院)은 안동권씨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을 주벽으로 죽림공(竹林公) 권산해(權山海, 1403~1456, 19세, 좌윤공파) 공을 동배로 귀봉공(龜峯公) 권덕린(權德麟, 1526~1573, 23세, 좌윤공파) 공을 서배로 배향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78번지에 위치한다.

4월 19일 오전 11시 운곡서원에서는 권혁무 운곡서원 운영위원장 등 참례원(參禮員)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향례(春享禮)가 참례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춘향례는 오전 8시부터 시도(時到)를 시작으로 진설(陳設)과 파록(爬錄), 사축(寫祝), 향례 봉행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도를 마친 참례원들은 운곡서원 강당 정의당(正蠶堂)과 동쪽 방·동교재(敦敎齋)와 서쪽 방·잠심재(潛心齋)로 각각 나뉘어 간식을 간단하게 먹은 후 10시부터 권혁조 도유사와 권혁무 운곡서원 운영위원장 등이 좌정한 가운데 집사(執事)의 소임을 나누어 정하는 파록(爬錄)에 들어갔다. 초현관에는 권혁조(權赫照), 아현관에는 이원봉(李源奉), 종현관에는 김상왕(金相旺, 대죽(大祝) 권태환(權泰煥), 찬자(贊者) 권용하(權容夏), 알자(謁者) 권혁목(權赫穆), 찬인(贊引) 권한우(權漢旭) 등으로 각각 분정했다. 특히 대죽은 향례가 시작된 아래 안동권문의 후손이 맡은 적이 없었으나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 이번에 처음 권태환 족친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록이 끝나자 참례원 전원은 시조 태사공과 죽림공과 귀봉공의 위폐가 모셔져 있는 운곡서원 뒤편의 경덕사(景德祠)로 이동하였다. 권태환 대죽은 세필(細筆)로 축문을 쓰는 사축(寫祝)을 했다.

이어서 권혁조 초현관은 진설을 확인하고 권태환 대죽은 헌물을 냈다. 초현관은 먼저 시조 태사공께 현작하고 동배의 죽림공과 서배의 귀봉공 순으로 현작했다.